

# 결혼생활의 위기극복법

백 상 창/건강가정 아카데미, www.healthymind21.com

**트** 로이드는 안과 의사로서 겉으로는 사랑하고 결합하고 자라나고 자립의 과정이 있으면 단절하고, 헤어지고, 파괴하고, 재탄생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서양인들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들을 낳겠다는 마음과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서로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찾거나, 혼자 독신으로 지내고 말겠다는 심리도 있었다.

따라서 이혼이나 가정붕괴 현상은 서로가 결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정신에너지가 소진(消盡)되었거나, 또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 놓겠다는 외부적 힘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이 양자가 다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남녀들이 서로 교제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거나, 가정 생활에 임하는 자세를 관찰해 보면 매우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서양처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이나 부모가 정해 주어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즉 서양과 한국의 전통사상이 뒤범벅되어 남녀가 교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 속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좋은 결혼이라고 얼마나 잘 보아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속 깊숙히 있

던 한(恨)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데 역점을 두기도 한다.

마음에도 없지만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아무개의 친척이 된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 행복을 마음 속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친정식구, 동창생, 이웃사람, 고향친구 등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려 한다. 말하자면 마음 속의 한풀이로 가정을 꾸미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나 인격적 결단에 의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헤어질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부부갈등, 이혼, 가정붕괴 등의 증상도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진행되는 경과도 일정하다고 할 수 없다. 더 이상 못 갈 것처럼 진행되다가도 자식을 낳는다든가, 미국에서 삼촌이 돌아왔다든가,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든가,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었다든가 해서 다시 금 애정을 되찾고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이 재결합의 길로 가기도 한다.

서양인의 사유(思惟)가 전통적 한국인의 사유와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관련되는 한두 가지 점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양인은 운명이나 신(神)의 명령, 권위의 강요 등을 결코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다. 자신이 생각해서 뜻에 어긋난다고 믿어지면 계속 투쟁을 벌여 관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면이 있는 서양인은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르면 반드시 끝장을 보고자 한다. 그래서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서슴치 않고 헤

---

사랑도 꾸준히 가꾸고 저축했다가 혹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밑게 굴거나,

아니면 싫증이 날 경우에 관용을 베풀고, 측은하게 생각하며,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는 아량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

어지는 것을 오히려 떳떳한 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사유의 특징의 하나는 천지인(天地人)의 조화사상으로서 자신의 의사나 의지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다.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극복하려고 한다. 부부갈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서로가 참거나 받아들여려고 한다. 근대화나 서구화의 풍조를 겪으면서 무분별하게 서양을 모방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장점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즉 운명을 거부, 도전, 반발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수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부부간에 어떠한 모순, 오해, 갈등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고 마침내 행복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사랑을 가꾸고 저축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다. 사랑을 저축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양사람들은 좋으면 어쩔 줄 모르게 기뻐하며 상대방에게 온갖 달콤한 소리를 다 하다가도 사랑이 일시적으로 식거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언제 뺏겨나가는 듯이 냉정해지고 상대를 푸대접하며 욕설과 저주를 한다. 물론 희로애락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좀더 여유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인간의 간교한 마음을 이해해야 하며, 좋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싫다고 너무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랑도 꾸준히 가꾸고 저축했다가 혹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밑게 굴거나, 아니면 싫증이 날 경우에 관용을 베풀고, 측은하게 생각하며,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는 아량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인생은 즐기 위해서 왔는가?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기대하고 또 사랑 속에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하다. 또 기대에 어긋난다고 좌절하고 실망하여 마침내 헤어지고 말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도 어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의 쾌락이나 일시적 욕망 충족이나 성공하기, 앞서기, 큰인물되기, 으시대기 등만을 위해 산다면 무의미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가치있는 삶,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목표란 결국 사명감의 삶이 아닌가 한다. 이런 사명감의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에는 좌절이나 소외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해야 할 과제, 넘치는 기쁨, 사랑을 듬뿍 쏟아 넣는 데서 오는 성취감 등이 함께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명감의 자세에서 살게 된다면 마음이 느긋해질 뿐 아니라 사소한 일을 가지고 헤어지거나 가정을 파괴해 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무리 세태가 변하고, 서양의 풍조가 불어온다고 해도 정신을 잃지 않고 지켜간다면 주체의식을 지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PPP**